

LG이노텍, 3/4분기 적자전환

매출 8.3% 감소에 영업적자 54억원 ... 4/4분기도 하락세

LG이노텍의 3/4분기 영업실적이 감소했다.

LG이노텍은 3/4분기 영업적자가 54억원으로 적자로 전환됐다., 매출은 1조671억원, 당기순손실 356억원을 기록했으며,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8.3%, 전분기대비 9% 감소했다.

LG이노텍은 “3/4분기 영업적자는 각종 효율화 노력 등으로 시장 예측보다 크게 줄어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LED(Light Emitting Diode)는 LED조명 모듈 판매가 증가했으나 TV용 LED BLU(Back Light Unit)의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2/4분기보다 9% 감소한 248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.

카메라 모듈 매출은 주요 수요기업들의 스마트폰 모델 변경에 따른 일시적 물량 감소로 2/4분기보다 21% 줄어든 2278억원을 기록했으며, 디스플레이&네트워크(DN), 인쇄회로기판(PCB) 등의 매출도 감소했다.

LG이노텍은 “4/4분기도 계절적 비수기로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”이라며 “주요 고객기업들의 신규 모델에 자사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고부가가치제품 비중을 늘리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0/31>